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모두자산신탁에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 모두자산신탁(이스트스프링 퇴직연금 코리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 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공채 등에 투자하여 신용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투자한 채권의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을 추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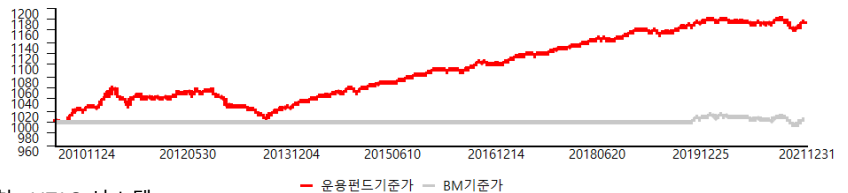
-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하여 비교지수 대비 펀드의 목표 듀레이션을 결정한 후, 국채와 공사채 및 회사채 또는 단기 채권과 장기채권 간의 상대가치를 분석하여 섹터 및 수익을 곡선상 자산배분 비율을 결정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의 확보를 추구합니다.

- 수익률 제고와 신용등급 상승에 따른 자본 이득 추구를 위하여 회사채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회사채 등에 대한 투자는 투자 유니버스 내에서 신용도 개선이 예상되거나 펀드 멘탈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섹터 또는 종목 위주로 선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실정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08%	0.21%	0.13%	-0.25%	1.30%	2.37%	7.19%	17.23%
클래스 C	0.03%	0.09%	-0.12%	-0.74%	0.30%	0.87%	-	6.19%
클래스 C-E	0.05%	0.12%	-0.05%	-0.59%	0.61%	1.33%	-	4.29%
벤치마크	0.06%	0.04%	-0.05%	-0.61%	-	-	-	0.24%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설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8억 원

-퇴직연금코리아증권모1(채권) 1,096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모자형, 종류형
 - 모두자산신탁 편입비: 60% 이상
 - 모두자산신탁 채권편입비: 70% 이상(단, 국공채에서의 투자 60% 이상)

설정일

(운용펀드 : 2010년 11월 24일)

- 클래스 C : 2017년 02월 28일

- 클래스 C-E : 2017년 08월 22일

벤치마크 매경BP종합(국공채) 60% + 매경BP종합(A-이상회사채2~3년) 30% + Call 10%

신탁업자 국민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3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4영업일

투자위험등급 5등급(낮은 위험)

1	2	3	4	5	6
---	---	---	---	---	---

자산 구성 현황 (2021년 12월말, 모두자산신탁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1년 12월말, 모두자산신탁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국고00875-2312(20-8)	13.5	효성캐피탈236	4.6
국고03750-3312(13-8)	9.5	한국캐피탈405-5	4.6
인천도시공사188	9.1	신한카드2051-1	4.4
국고01000-2306(20-3)	9.1	롯데캐피탈263	3.7
국고03000-2409(14-5)	6.6	국고01875-2606(16-3)	3.6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 C : 총 연 0.4925% (판매 0.3%)
 - 클래스 C-E : 총 연 0.3425% (판매 0.15%)
- (공통사항)
- 운용 0.16%, 신탁 0.02%, 사무관리0.0125%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12월 글로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FOMC에서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테이퍼링 가속화를 결정했고, 내년 점도표 금리 인상 횟수를 3회로 상향 조정하며 매파적 스탠스를 보였으나, 채권시장에서는 이를 일정부분 선반영하고 있었던 만큼 대내외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외 ECB는 22년 3월 PEPP 중료를 발표, BOE는 기준금리를 0.25%로 15bp 인상하는 등 각 중앙은행이 정도는 다르나 긴축 행보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시장은 주요국 중앙은행의 긴축에 대한 경계감에도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추가 인상에 대해 여유가 있다는 한은 총재의 발언 등에 의해 시장 심리가 진정되며 금리가 안정되었습니다. 또한, 청와대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검토 부인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에, 국고 3년 금리 1.70%대 초반 및 10년 금리 2.10%를 하회하는 등 국내 채권 금리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선물 롤오버 이후 재로 부재 속에서 외국인의 국채선물 순매도 전환에 금리 하락분 되돌림 있었으며, 연말 기관의 복클로징으로 매수 제한된 가운데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승인 및 오미크론 변이 증상이 경미하다는 분석이 발표되자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다소 진정되며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국고3년 금리는 전월대비 0.8bp 상승한 1.795%, 10년 금리는 5.1bp 상승한 2.255%로 마감하였습니다. 펀드 듀레이션은 평가 기간중 BM대비 99% ~ 100% 수준에서 운용하였으며, 듀레이션 효과는 펀드 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수익률 곡선에서는 BM대비 상대 성과가 양호했던 2~3년 구간 U/W와 부진했던 초장기 구간 O/W 등으로 커브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가운데 국고채 섹터 O/W 등으로 전반적인 섹터 효과가 긍정적이었고 BM구간내 상대적으로 만기가 줄어든 국고13-8 등의 개별 종목 효과가 양호하게 나타나면서 펀드는 종합적으로 BM 성과를 약 1.4 bp 상회하였습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코로나 확산세 심화에 따라 강화된 거리두기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연되는 상황이나, 여전히 높은 물가상승세와 정책당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의지로 1분기 중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예상되며, 연준의 테이퍼링 가속화 및 금리 인상 스탠스는 경제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금리 정상화 기조는 상당 부분 시장에 선반영된 재료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며 금리가 소폭 하락하는 제한적 강세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연초 자금 집행에 의한 대기 매수세가 유입되고, 국고채 발행액이 전년대비 감소했다는 점은 우호적인 수급 여건을 형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 완화 및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 속 리스크 온 분위기 확산,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경 이슈 등의 불확실성 재료는 연초 금리 변동성을 확대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월중 국고채 3년은 1.75~2.00%, 국고채 10년은 2.10~2.45% 범위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국고 10-3년 스프레드 기준 40bp~60bp 레인지를 전망합니다. 듀레이션은 당분간 중립 이상에서 금리 하단 접근시 중립적 운용할 계획이며, 일드 커브는 중립적 전망에 따라 2~3년 U/W 및 7~10년 O/W 폭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기업실적 및 부실 차원에서 별도의 크레딧 이슈는 없는 가운데 통화정책 변수가 크레딧 시장을 지배하는 양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21년말 기준 크레딧 스프레드(AA- 3년물 회사채 61.6bp, 여전채 79.8bp)는 밴드 상단에 위치하여 가격 매력도가 높은 상황이며, 자금유입에 따른 연초효과에 힘입어 당분간 점진적인 스프레드 축소 예상됩니다. 크레딧 비중은 12월말 기준 24%로 BM 비중(33%) 대비 과소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중립 수준까지 늘려갈 계획입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확약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